

전주시 선진행정 몽골에 전수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한 축인 미래유산 프로젝트와 시민들에게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끝까지 민원 동행실과 같은 전주시 우수정책이 몽골에 소개된다. 전주시는 몽골 최고 교육 훈련 기관이자 정부 정책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몽골 국립 거버넌스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Governance, NAOG) 연수단 15명이 지방행정 우수사례를 배우고 지역개발 전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1일 전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몽골 지방정부의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의 행정개혁과 성과관리, 지방행정의 발전상, 우수사례 등을 배우기 위한 NAOG 연수단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방문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몽골 최고 교육 훈련 기관이자 정부 정책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몽골 국립 거버넌스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Governance, NAOG) 연수단 15명이 지방행정 우수사례를 배우고 지역개발 전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1일 전주를 방문했다. 몽골 지방정부의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한국의 행정개혁과 성과관리, 지방행정의 발전상, 우수사례 등을 배우기 위한 NAOG 연수단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방문은 전주시가 유일하다.

시는 이날 다미란 체데브(Damiran Tsedev) NAOG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몽골 방문단을 대상으로 전주만이 가진 삶의 흔적과 문화자산, 역사콘텐츠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재생해 전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제2의 한옥마을 미래유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기까지의 노력과 전주시 전역이 국제도시로 확대 재인증되는 등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온 노력들과 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문단은 탄소산업과 3D프린팅산업, 드론산업, ICT(정보통신기술)에 바탕을 둔 사물인터넷(IoT)산업 등

전통문화 보존·계승 등 지역문화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

전주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중점 육성 중인 5대 신성장 산업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방문단은 전주시 민원봉사실 등을 찾아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끝까지 동행민원실' 운영방식에 대해 정취하고, 지문인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시연도 지켜봤다. 또, 사회적 약자 등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창구 △천년

전주 콜센터 운영 등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을 둘러보며 생동감 있는 전주 역사문화관광의 현장을 체험했다. 다미란 체데브 NAOG부원장은 이날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했고, 전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전주의 미래를 보았다"라며 "전통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한 미래유산 프로젝트와 최첨단 산업이 조화를 이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주의 모습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몽골 NAOG는 몽골 유일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자 정당원 및 사기업 직원 등 몽골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교육 받는 몽골 최대 종합교육기관으로, 정부 정책연구기능 및 학·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보건소,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

전주시가 보다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는 21일 '제10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전북지역 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지사, 검진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풍남문광장 일대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암 예방 및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은 '암 관리법'에 의해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암(만40세 이상 2년 주기)과 간암(만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대장암(만50세 이상 1년), 유방암(만4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암(만20세 이상 2년)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전주시 주최로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에서는 패널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암 예방 수칙과 건강생활 습관 실천, 정기적인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암 예방과 검진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전주인문학 365 네트워크 회의 개최

전주시를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주인문학 365' 네트워크 회의가 전주시 67개 인문부서 및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1일 평화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은 올해 함께 추진해나갈 전주인문학 365 계획을 공유하고, 인문강좌 통합 홍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제2회 전주인문학 365' 행사의 공동홍보 및 행사활성화를 위한 설명과 함께, 네트워크 기관·단체들의 행사 참여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모색했다.

67개 인문학 네트워크 기관·단체는 이번 전주시 인문주간에서 전주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인문강좌와 인문체험 등을 마련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인문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인문학 네트워크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들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전주인문학 365' 코너를 활용해 전주시 기관·단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문학 강좌 및 인문체험 행사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자료들을 서로 공유해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가상·증강현실 산업 우수기업 육성

산업기반 조성·창업활성화·투자 마케팅 지원 마련

전주시가 성장동력산업인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산업을 이끌 우수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1일 진흥원 멀티미디어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형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융합사업단장, 도내 가상증강현실분야 20여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ICT 분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프

로그램인 '2017 전주시 ICT SM ERP(Small/Medium-sized Enterprise Revitaliz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시는 매 분기별로 ICT융합컨퍼런스 및 포럼' 등 다채로운 ICT SMERP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형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융합사업단장은 전주시 핵심사업인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기반의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가상증강현실산업 정책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국내외 VR산업 동향 및 기술현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CT(문화콘텐츠)산업 추진전략 등도 소개했다. /김민근 기자

이와 함께, '지역 가상증강현실산업 육성전략'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콘텐츠 발굴 전략' 등을 주제로 한 참석 기업 대표들의 자유로운 토론도 이어졌다. 아울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지역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제시된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향후 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기반 조성 및 인재 양성 및 창업활성화 방안, 투자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 사기친 20대 검거

전북 무주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품을 올려 대금을 가로챈 박모씨(25,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터넷 네이버 중고사이트에 스노우보드를 싸게 판다며 허위 매물로 13명에게 25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스노우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보다 많은 구매자들이 자신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주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마땅한 벌이 없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경찰조사앞둔30대공시생자살

경찰 출석을 앞둔 30대 공무원 준비생이 고시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45분께 전주 시내 한 고시텔 방 안에서 김모씨(30,남)가 목에 숨겨 있는 것을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책상에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가 놓여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혐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김씨가 경찰 출석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징벌유예 등을 확정받으면 5년 간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선거교육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21일 지역 내 결혼이주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의 선거문화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선거이론과 투표방법을 배우고, 모의 투표 체험을 통해 투표절차를 배우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시는 이번 선거 교육 및 모의 투표 체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투표권을 보유했거나 향후 선거권을 갖게 될 결혼이주여성들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한민국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이들이 선거제도를 몰라 투표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